꽃길 따라 피어나는 명상 숨결, 지역을 품다

지역 불교人 화순 쌍봉사 주지 증현 스님

명상 · 연대 · 나눔 통해 만드는 화순불교의 새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인 쌍봉사 주지 증현 스님. 스님은 사찰이 기도와 수행 공간을 넘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찰은 수행을 넘어, 치유와 연대의 공간입니다"

천년고찰 전남 화순 쌍봉사(雙峰寺)가 명상과 문화, 지역공동체를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화순의 대표 사찰인 쌍봉사는 최근 '세계 명상 관광 사찰'이자 '남도 천년 사찰'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쌍봉사 주지이자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 증현 스님이 있다.

증현 스님은 "이제 사찰은 기도와 수행만의 공간을 넘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의 말처럼 쌍봉사는 지금, '마음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활짝 열려 있다.

꽃 명상, 세계로 피어나다

쌍봉사는 최근 명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능을 넓혀가고 있다. '꽃 명상'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은 '피어나는 마음, 물드는 하루'라는 부제로 경내 무설전에서 열리며, 명상·요가·차담·걷기·창작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 힐링 콘텐츠다.

프로그램에는 플라워테라피 명상, 사운드배스 요가, 차크라 정화, 아로마 향기 명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 명상,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만다라 채색과 식물 심기, 도자기 다구 만들기 등이 더해진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꽃처럼 피고 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명상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범운영 당시 참가자 20명 전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화순군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50% 비용 지원을 약속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화순불교사암연합회 역시 증현 스님의 지도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찰을 연합회원으로 적극 유치해,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국가 예산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사찰들이 많습니다. 회원 사찰들이 십시일반 모아 도움을 주고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품고 주민과 함께

쌍봉사는 국보인 철감선사탑과 탑비,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인 지장보살상, 전남유형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등 다수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화순 11경 중 9경으로도 등재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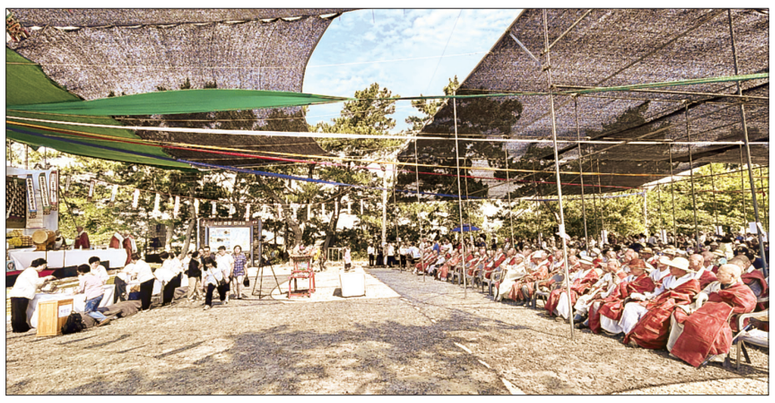
최근에는 문화관광특구 지정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쌍봉사 인근의 의병 무기고, 학포당, 조광정 생가 등 지역 역사 자원과 연계해 이양면 전체를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쌍봉사는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쌀농사, 밭일, 김장 나눔, 반찬 배달 등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찰과 마을이 함께하는 동짓날 팥죽 나눔도 매년 진행된다.

"주민과 절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수행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쌍봉사가 수행과 명상은 물론,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지역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숭총림,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일, 간월암 일원서 수륙영가천도재도 봉행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8월 1일 서산 간월암 일원에서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및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8월 1일 서산 간월암 일원에서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 및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참회와 수행으로 공덕을 닦는 법회로, 영산재·수륙재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힌다.

수덕사는 지난 6월 14일 생전예수재에 입재해 이날 회향을 맞았으며, 선망부모를 비롯해 태중영가와 법계의 외로운 영령들을 천도하기 위한 수륙대재도 함께 봉행했다. 법회에는 방장 달하 우송 스님을 비롯해 주지 도신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본말사 사중 스님들과 신도 및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의식은 오전 9시 30분 시련과 대령의식을 시작으로 △관욕 △조전 △점안 △사자단 육감확청 △명부청량 △고사단 △마구단 순으로 봉행됐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놈'이 태초이고 언제나 새출발이며 마음의 중심"이라며 "이 주인공을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생전예수재의 본질이자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그 감응 속에서 업장이 순화되고 수행의 그릇이 닦인다"고 설파했다.

우송 스님은 "〈금강경〉과 〈화엄경〉, 경허 스님의 선법도 결국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놈'에서 시작된다"며 "간월암에서 10년, 수덕사 대웅전에서 천일 동안 관음기도를 이어온 그 마음이 바로 이 시대 수행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동참 대중은 수륙영가를 위한 시식과 봉송, 액운을 태워 보내는 소전의식을 봉행한 후 바닷가에서 자비실천과 해탈을 기원하는 방생의식을 거행하며 법회를 회향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름밤 감동, 화엄사 모기장 음악회 성료

8월 2일, 화엄원 특설무대서 '뮤지컬 갈라' 700여 명 동참



지리산 고찰 화엄사가 무더운 여름밤을 문화와 예술로 수놓았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2일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뮤지컬계의 신사 이건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라는 부제로 관객 700여 명이 함께 한 이번 음악회는 관람 예약이 오픈 15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공연은 식전 뮤지컬 영화음악 상영과 대북·범종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를 시작으로 '오페라의 유령', '겨울왕국', '알라딘', '시카고', '레베카' 등 유명 뮤지컬 음악을 연달아 선보였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는 자리"라며 "여러분 앞에 놓인 감자와 옥수수, 에코백 하나하나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는 이름 그대로 '모기장 안에서 관람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일상 속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음악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찾는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스님과 관객이 함께 자연과 호흡하고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이 독특한 구성은 '화엄사 음악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립 1년 창원불교신도회 "불교 발전 매진"

7월 24일, 창원 세코연회장서 "출·재가 함께 불교 발전 견인"



창립 1주년을 맞은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가 7월 24일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원 세코연회장에서 열린 기념법회는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창원불교사암연합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상임고문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과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관음사 황봉 스님을 비롯한 부회장 지암 스님, 성욱 스님, 감사 혜명 스님, 재무부장 선해 스님, 복지부장 성우 스님, 정법사 명원 스님 등 지역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상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7월 창립법회와 자비나눔 성금 행사, 삼보일보 행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전하는 불교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많은 불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범식을 했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고하고 "불교계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신도회가 지역불교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처럼 조직화된 신도회가 출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신도회가 두 바퀴처럼 굴러가며 창원불교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사찰들, 청소년·어린이 품다

용흥사·동원사, 여름캠프 잇달아


광주 동원사가 8월 1~2일 진행한 여름캠프 기념촬영.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청소년과 무더운 여름에 지친 어린이들이 전남 사찰로 향했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용흥사 미르닐 청소년 여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

계곡에서의 오감 명상과 조별 스토리텔링, 나누기, 호흡·동작 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학업과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보냈다.

주지 덕유 스님은 "천년고찰 산사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귀한 인연을 맺은 것"이라며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도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4차 동원사 여름캠프'를 개최해 유치부 및 초등학생 45명과 1박 2일간의 사찰 체험을 함께했다.

'마음 숲에서 놀자'를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아이스브레이킹, 빈그릇 공양, 놀이 명상, 마음 만들기, 환경 이야기, 불빛 명상, 협동 미션, 춤명상, 물총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불교와 자연, 공동체의 가치를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주 지각 스님도 "함께 웃고 자며 지낸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

8월 1~3일 40여 명 동참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 싯달타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입재식에 이어 타종 체험과 108배, 연꽃등·염주 만들기, 명상 걷기, 영화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봉강요에서 도예 명장과 함께하는 도자기 만들기도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4개 사찰, 율리구치소 자비나눔

3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울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 열린선원(주지 창윤 스님), 황룡사(주지 황산 스님), 정토사(주지 성심 스님)는 7월 28일 울산 율리구치소(소장 김홍대)를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수 500mL 5000병, 슬러시형 아이스크림 800개, 컵라면 800개를 마련한 것.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사찰의 작은 정성이 구치소 안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전 형통사, 윤6월 생전예수재 봉행

혜총 · 성림 대종사 증명



대전 보문산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가 8월 3일 을사년 윤6월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2층 큰법당과 경내 일원에서 열린 이날 입재 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와 통도사 성림 대종사가 증명으로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이라며 "마음을 닦고[修心] 기르고[養心], 바르게 쓰는 것[用心], 이 세 가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마이트리 봉사단, 삼계탕 나눔

7월 23일 천안 서부역 광장서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이트리 봉사단(단장 혜정 스님)이 7월 23일 천안 서부역 광장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사진〉

이날 공양은 청주에 거주하는 불자 이점식 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봉사단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150인분을 정성껏 조리해 나눴다.

봉사단장 혜정 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 시원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